

中企 보듬는 ‘동반자금융’ 선포... “시장 1위 지킬 것”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당기순익 4년연속 1조원 돌파
디지털 신규인력 20% 채용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예상하는 올해 금융권의 격전지는 중소기업 대출과 디지털 금융 시장이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 시장은 기업은행 입장에선 선두 자리를 놓쳐선 안 되는 부문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1등 은행이라는 위상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경쟁은행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 금융 만큼은 압도적인 차별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행은 1998년 네트워크론, 2008년 상생협력대출이라는 혁신적인 상품을 세상에 내놨다”며 “2018년에는 중기 금융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 넘는 기업은행만의 예리한 무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 1위 수성

김 행장은 “작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금융에 뛰어 들었다면 올해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앞다퉀 중기금융 시장에 뛰어 들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로 경쟁은행 모두가 중기대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중기 금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해에는 ‘동반자 금융’을 선포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사다리 역할을 하

겠다는 의미다.

김 행장은 “경쟁은행의 움직임이 면밀히 살펴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기술금융, 기업카드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문, 그 어느 것 하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절대적으로 지켜낼 계획이다.

지난해는 기업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 해였다.

그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이 140조원을 넘어섰고, IB부문은 물론 퇴

직연금, 외환, 신용카드 그리고 신탁부문도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생존을 위한 기초체력인 건전성 부문도 부단한 노력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업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2476억이다. 2016년 연간 순이익의 1조1646억을 이미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창립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당기순이익 1조원(연결기준)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디지털 혁신인재 1만명 육성”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i-ONE) 앱에는 매일 111만명이 방문한다. 전국의 627개 영업점에 매일 1770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미 모바일을 통한 개인대출 실적은 영업점 전체 실적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김 행장은 “우리의 플래그십(Flagship) 영업점은 이제 아이원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기업 스마트뱅킹과 빅데이터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권 최초로 창구업무의 100% 디지털화를 시작했다.

인프라 뿐 아니라 전 직원의 디지털 경

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창의적인 융합과 혁신적인 도전을 실천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인재 1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비중도 신규 채용인력 기준으로 2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취임하면서부터 현장을 가장 강조해 왔다. 현장은 이익의 원천이자,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시무식에서도 “변함없이 고객과 현장을 가장 중요한 경영의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더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지난 2일 시무식을 마치고마자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강원지역 영업 현장을 찾았다. 강릉지점을 시작으로 속초, 동해를 거쳐 원주 지점까지 이날 이동한 거리만 도 총 700km에 달한다.

김 행장은 지난 2016년 말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총 196개 영업점을 방문해 4287명의 직원들을 만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JB금융 전북銀, 영업·디지털 강화 조직개편



JB금융그룹 여의도 사옥, /JB금융그룹

**영업추진부 조정해 민첩성 높여
디지털본부·리스크검증팀 신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영업 기능과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비이자사업 총괄업무를 영업전략본부에 집중하고, 일반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력 제고를 위해 영업추진부서의 역할을 조정해 조직의 민첩성을 높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과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디지털전략부, 디지털사업부로 구성해 신규 사업분야 및 비대면채널을 통한 미래 영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도 다졌다. 전북은행은 여신감리부 산하 리스크검증팀을 신설,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리스크 모형에 대한 적합성검증 기능을 신설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 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강당에서 2018년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손보

NH농협손보, 2018 사업추진 결의

대표이사·임직원 등 50여 명 참석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강당에서 오병관 대표이사 와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오 대표이사 와 임직원들은 이날 ‘질적 성장을 통한 확고한 수익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전략 방향을 세우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 역량 고도화’, ‘수익성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보험산업 환경변화

적극 대응’, ‘농업인·농업과 살생발전 추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오 대표이사는 “농업인과 고객을 돌아 보는 현장경영에 힘쓰겠다”며 “올해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선도보험사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손보 임직원들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청계산을 등반하며 2018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신한은행 “은퇴 준비 상담 받으세요”

내달 말까지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황금개피해를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은퇴 준비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은퇴)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대다수 국민이 체계적인 은퇴 준비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은퇴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2014~2015년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 거주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를 통한 노후 대비 상담 이용 경험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주최한 ‘부부은퇴교실’에 참여한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설계를 받아본 사람의 비율이 19%로, 은퇴를 앞둔 고객 대다수가 본인의 은퇴 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신한S뱅크 앱을 통해 ‘S-미래



설계’ 은퇴설계 진단을 받거나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공백 기간 대비 목적 ‘가교연금’ 상품인 미래설계크레바스연금예금, 미래설계장기플랜연금예금, 신한미래설계계좌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국 영업점의 은퇴설계 전문가와 다양한 미래설계(은퇴) 상품, 은퇴 포털 앱인 ‘미래설계포유’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시해 고객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中企 대출금리 0.4%p 우대

우리銀, 4대보험 도입업소 대상

우리은행은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 우대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도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연 0.4%포인트 우대한다.

우대 대상은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한 고객 중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우대율은 자동이체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건당 연 0.1%포인트, 3개 이상을 등록하면 연 0.4%포인트다.

우대 적용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특화 상품인 ‘우리CUBE(큐브)’, ‘우리가맹점포워트대출’ 등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등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보험료 부담 적은 ‘KB다이렉트 암보험’ 출시

KB손보, 최대 100세까지 보장

KB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채널 전용 암보험 상품 ‘KB다이렉트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상품은 KB손보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판매수수료가 없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더욱 낮췄다.

만 19세부터 4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15·20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고객이 직접 기본형·표준형·고급형 등 세 가지 플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질병사망·암사망 담보는 80세까지 보장하며 기타 다른 담보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암진단비와 치료비는 물론 암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등 암 발생 시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해 폭넓게 보장한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10대 고액암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첫번째 암 진단 확정 후 2년마다 재진단 시 재진단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보험료는 표준형, 상해 1급, 20년납·20년 만기, 월납, 40세 남성 기준 월 3만 7759원, 40세 여성 월 3만 3640원이다.

/이봉준 기자